

〈기생충〉은 과연 중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김정은**

目 次

1. 서론
2. 중국에서 〈기생충〉을 바라보는 시각
3. 중국 영화시장에서 〈기생충〉의 성공 가능성
4. 결론

1. 서론

한국시간으로 2020년 2월 10일 오전 10시(미국 현지시간 2월 9일)에 시작된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하 아카데미)에 전 세계 영화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중들 또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寄生蟲, PARASITE, 2019)〉이 과연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국제 장편 영화상(구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갖고 시상식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수상이 유력했던 ‘국제 장편 영화상’ 외에 예상을 뛰어넘어 ‘각본상’,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 등 아카데미의 주요 상을 싹쓸이하자 한국은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다. 대중들은 지난해 5월 하순 전해진 칸 국제 영화제(이하 칸)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보다 더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3대 국제 영화제(칸, 베를린, 베니스)에 비해 아카데미는 유독 한국 영화와 인연이 없었다. 게다가 아카데미는 할리우드 이외 지역(나라) 영화, 특히 아시아 영화의 수상이 유독 어

* 이 논문은 ‘2020년 중국문화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2020년 8월 21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였다.

** 한국외대 중국어교육과 강사, 한국외대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려워 악명이 높았고, 같은 서구 영화라 할지라도 '비(非) 영어' 영화의 수상 또한 어려워 미국 영화 로컬 시상식일 뿐이라는 악명 또한 있었다. 이러한 아카데미에서 아시아 영화로는 리안(李安) 감독의 〈와호장룡(臥虎藏龍,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0)〉에 이어 19년 만에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하고, 아시아 감독으로는 리안 감독(2006,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영화 최초로 '각본상'과 아카데미의 꽃 '최우수 작품상'까지 그야말로 한국 영화사를 넘어 아시아 영화사까지 다시 쓰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칸과 아카데미를 동시에 석권한 세 번째 작품이자 '비(非) 영어' 영화로는 처음이었다. 유럽 영화제는 영화의 '예술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술 영화'의 수상이 주를 이루지만, 아카데미는 '상업성'과 '대중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대중 영화'의 수상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동시에 석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기생충〉이 64년 만에 그 영광을 차지하며 세계 영화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¹⁾

그동안 한국 영화와 아시아 영화는 예술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가 다수 있었으나 상업적인 면에서의 성과는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중국 영화는 5, 6세대 감독 및 젊은 신진 감독들이 유럽 영화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도 아카데미에 제대로 노미네이트(nominate) 되는 일이 없었다. 〈와호장룡〉은 할리우드 자본으로 제작하여 엄밀히 말하면 중국 영화라 말하기 힘들었다. 감독상을 2번이나 수상한 리안 감독 역시 대만 출신으로 중국대륙 감독이 아니었으며, 게다가 중국 영화가 아닌 미국 영화 2편으로 감독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중국 영화 또한 아카데미와 인연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하자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칸 황금종려상 수상부터 아카데미 4관왕 수상, 〈기생충〉 팀의 청와대 오찬 소식까지 모두 웨이보(微博) '인기 검색어(熱搜)'에 오르며 중국 대중들의 관심 또한 상당했다. 특히 〈그림1〉과 같이 '〈기생충〉 팀 청와대 오찬' 소식을 알리는 인기 검색어 게시물은 〈그림2〉에서 보듯

1)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의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기사 참고. 조연경, 「[新역사 '기생충'①] "4번의 호명, 4번의 전율" 전세계 홀린 오스카 황홀경」, 『일간스포츠』, 2020년 2월 11일.

‘리포스트(轉發)’ 1,515회, ‘댓글(評論)’ 3,875개와 ‘좋아요(贊)’ 7.7만 개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중국대륙의 네티즌은 아카데미 중계를 보기 위해서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P를 우회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아카데미 당일 <기생충>이 수상할 때마다 그 편집 영상이나 관련 글을 웨이보에 올려 서로 정보를 공유하였다. 물론 그 중심에는 ‘鳳凰天使TSKS’³⁾의 공식 웨이보 계정과 한류 팬들이 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연구자는 중국에서 <기생충>이

2) 출처: <https://m.weibo.cn/1623886424/4474010316806201>, 검색일: 2020년 2월 20일, 2020년 7월 30일, 2020년 8월 16일. 본고에서는 이 게시물의 댓글과 대댓글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 시기는 2020년 7월 30~31일이다. 이후 본고의 댓글과 대댓글의 인용에서 출처와 검색일이 따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모두 이 게시물의 댓글과 대댓글이다.

3) 중국의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 번역팀이다. 이들의 웨이보 계정은 한국 드라마 번역뿐만 아니라 예능과 영화를 번역하여 올리기도 하고, 한국 연예 뉴스와 중요한 일반 뉴스를 번역하여 올리기도 한다. 이 계정의 팔로우 수는 2020년 10월 10일 기준 449만 명이다. 2019년 12월 3일 기준 209만 명이었던 팔로우 수가 10개월 만에 2배 이상 경증 뛰었다. 2019년 팔로우 수는 김정은, 『중국 시피핀(CP粉)의 한류 팬덤 문화 연구』, 서울: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20, 6쪽 참고. ‘봉황천사TSKS’의 웨이보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eibo.com/u/1855152373>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연구의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즈음 웨이보에 접속하여 한국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阿斯達編年史, Arthdal Chronicles, 2019)〉 ‘퀵(群, 그룹)’⁴⁾에서 이 드라마의 여러 팬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팬이 연구자에게 갑자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어떻게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평소 이 팬은 〈아스달 연대기〉의 팬이기는 했지만, 이 드라마 ‘퀵(단체채팅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류 스타 송중기의 팬인 ‘송귀(松果)’⁵⁾가 아니었다. 그녀는 중국 배우 후거(胡歌) 팬인 ‘후자오(胡椒)’로서 ‘퀵’ 내의 팬이 대부분 송중기 팬이면서 한류 팬인 것에 반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류 스타에 관심이 많은 다른 팬들에 비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적었다. 우연히 〈아스달 연대기〉를 보고 드라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감상평을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것을 계기로 송중기 팬에 의해 ‘퀵’으로 초청된 팬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갑자기 〈기생충〉을 언급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녀가 기생충에 대해 연구자에게 질문함과 동시에 ‘봉준호와 〈기생충〉이 너무 좋다’는 특을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다른 팬이 ‘자신은 〈기생충〉이 그렇게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도 ‘자기도 그렇다’고 동조했다. 그러자 후거 팬은 ‘각자의

4) “웨이보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단체채팅방을 만드는 것이다. 이 대화창의 기능들은 한국의 카카오톡 ‘단톡방’과 유사하지만,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방식은 좀 더 엄격하다. 단체채팅방 회원가입의 경우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는 멤버가 외부의 팬을 초대하거나, 단체채팅방의 QR코드를 공유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데 ‘방장(群主)’이나 ‘관리자(管理員)’의 가입동의가 있어야 해당 단체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다.” 김정은, 위의 책, 56쪽 주석 114참고.

5) 중국에서 송중기의 팬과 팬덤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에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과 팬덤을 ‘아미(A.R.M.Y.)’라 지칭하듯 중국에서도 스타 팬덤에 대한 명명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아이돌 팬덤이 고유한 팬덤명이 존재하고 널리 알려져 사용되는데 반해, 배우의 팬덤명은 존재하더라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잘 사용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송중기의 한국 팬덤명은 ‘키엘(Ki Aile)’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이름은 팬덤 내부에서 사용될 뿐 외부적으로는 팬들조차도 단순히 ‘송중기 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의 팬덤명도 팬들 스스로 널리 사용한다. 한류 스타 팬덤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한국 팬덤명 ‘아미’를 그대로 중국어로 음역해 ‘阿米’라고 하듯 한국과 동일한 팬덤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송중기 팬덤명과 같이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팬덤명이 있기도 하다.

취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응수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던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한한령(限韓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을 한류 팬이 아닌 일부의 중국인들이 봤다는 사실이고, 둘째, 중국에서 〈기생충〉이 비합법적인 유통과정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만약 한한령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기생충〉이 과연 중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한한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중국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은 한한령 시기가 아니었다면 〈기생충〉이 중국에서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는지 상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생충〉을 비롯한 여러 콘텐츠가 여전히 비합법적인 유통과정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생충〉의 성공 가능성 추측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기생충〉의 성공 가능성을 추측하기 위해 중국 대중들은 〈기생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기생충〉 웨이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중심으로 수용자 분석을 계획하였다. 물론 “한 영화의 상업적 성공 및 문화적 파장에 대해 논할 때 댓글 분석이 얼마나 주효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이 한정된 대중의 의견이며, 특히 웨이보의 사용자 연령층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에 댓글 분석에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생충〉이 각 나라에서 영화홍보를 할 때 각국의 사회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달리하였지만, 그 마케팅의 타깃이자 호응의 대상은 대중이었고, 그 대중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기생충〉 입소문 확산에 기여하며 각국의 기생충 흥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네티즌들이 가지고 있는 〈기생충〉과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어떠한지를 봄으로써 ‘만약’의 상황에 대한 일부 예측을 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인기 검색어’ 게시물은 웨이보에서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여 올리고 웨이보 사용자라면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기에,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의 정체성이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VPN을 사용하여 거의 생중계를 할 정도의 적극적인 한류 팬과 시네�필(Cinephile)뿐만 아니라 보통의 웨

이보 사용자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게다가 웨이보의 주 사용자 연령층(2~30대 사용자가 대다수, 10대 중후반, 40대 초 중반 일부)이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는 연령층과 일부 겹침이 있기에, 한한령 시기가 아닌 상황이라면 <기생충>이 중국에서 어떠한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기생충>에 대한 여러 웨이보 게시물 중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시물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 7월 30일 웨이보 앱 검색창에서 '기생충'을 검색하였는데, '인기 검색어' 게시물 중 <그림3>과 같이 아카데미 수상 후 <기생충> 팀 청와대 오찬에 대한 게시물이 검색되었다. 중국 네티즌들이 이 게시물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영화의 정치성이 강조되는 중국 영화에 익숙한 중국 대중들이 영화와 정치의 만남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하기도 하여 이 게시물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3〉 '기생충' 연관 검색어 27~30

Q 美国寄生虫	
Q 文在寅祝贺寄生虫获奖	
Q 印度电影制片人称寄生虫抄袭	
Q 大韩航空拒播电影寄生虫	
Q 韩总统设宴款待寄生虫主创	热搜

'<기생충> 팀 청와대 오찬' 게시물의 댓글 3,875개 중 PC에서 수집되는 약 1,200개의 댓글을 정리 분석하였다.⁶⁾ 이 게시물의 댓글 중 '댓글의 댓글(이하 대댓글)'이 50개 이상 달린 것을 '중요 댓글'로 선정하였고, 좋아요 100개 이상을 받은 '대댓글'을 '중요 대댓글'로 선정하여, 이들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댓글'이 50개 이상 달렸다는 것은 논쟁이 형성된 '문제적 댓글'일 가능성이 높으며,

6) 웨이보는 앱을 기반으로 하는 SNS이기 때문에 PC에서는 일부밖에 보이지 않는다.

좋아요 100개 이상을 받은 '대댓글'은 다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이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중요 댓글'과 '중요 대댓글'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국에서 〈기생충〉을 둘러싼 논의를 범주화하고, 어떠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생충〉을 바라보는 중국 네티즌들의 시각을 분석함과 동시에 '만약 한한령이 아니었다면 중국에서 극장 개봉이 가능하였을지?', '극장 개봉을 하였다면 흥행에서 성공하였을지?' 등의 의문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국 영화시장에서 〈기생충〉의 흥행 가능성 여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에서 〈기생충〉을 바라보는 시각

〈기생충〉 팀 청와대 오찬에 대한 웨이보 인기 검색어 '중요 댓글'에 대한 분석 결과 크게 4가지 카테고리의 댓글이 있었다. 첫째는 한국 영화의 창작 환경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하는 댓글들이었고, 둘째는 한국과 중국 영화의 수준을 비교하거나 구체적 작품을 들어 비교하는 댓글들, 셋째는 중국 영화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들, 넷째는 네티즌들의 이중 잣대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들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 영화의 창작환경에 대해 부러움을 표시하는 중요 댓글들의 대댓글은 앱으로 봤을 때 모두 1,183개나 달렸다. 이 글들의 좋아요 수는 19,704개나 되었다. 이 네 개의 카테고리에 달린 대댓글은 반드시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만 달린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한국 영화의 창작환경을 부러워하는 댓글에 '하나도 안 부럽다'는 식의 대댓글이 달리고 공감도 많이 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 따라서 대댓글을 각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지 않고 같이 합쳐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중요하게 분석해 봐야 하는 의미 있는 대댓글을 위주로 예를 몇 가지 들며 그 안에 잠재된 의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과 효용성을 들며 〈기생충〉을 폄하하는 대댓글이 꽤 있었다. 〈기생충〉이 가지고 있는 영화의 내용 즉, 빈부와 계급 차에 대한 비판 및

풍자 등 사회현실을 고발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 재벌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재벌이 타파되겠냐고 반문하며, 사회 비판적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한국의 현실이 변하지는 않으며 흥행 수입을 올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었고 공감도 꽤 받았다.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무서운 건 이진 재벌에 조금도 영향이 없어.⁷⁾ (좋아요 2024)

북유럽 국가들을 찬양하는 거 좀 그만둬, 한국 찬양하는 사람 좀 멈춰!
한국 이승리가 인기 검색어에 몇 번이나 올랐었어? 해결됐어? 장자연은
몇 번이나 인기 검색어에 올랐었어? 해결됐어?⁸⁾ (좋아요 1120)

응! 장자연 사건도 영화화된 것 같은데, 10여 년이 지나도 아무런 결과
도 없어, 증인도 다 잡았는데도! 한국은 계속해서 더 많은 영화를 찍을 수
있어(분명 사실이 많으니까 각색하기만 하면 돼) 영향력은 단지 흥행 수입
을 올리는 것뿐이지!⁹⁾ (좋아요 231)

[반박] ㅋㅋ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재벌이라고 부르지 않아, '공산
간부 몇 세대'가 재벌보다 더 대단하잖아!¹⁰⁾ (좋아요 218)

그렇다면 “사회 비판적 영화가 꼭 사회를 변혁시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회 비판적 영화로 인해 바로 사회현실이 바뀐다면 좋겠지만, 대중에게 비판적 의식을 ‘각성’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영화의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상업적 예술 창작물로서 관객은 그것을 즐기러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영화를 계몽과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영화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에 크게 주목하였고, 중국에서는 지금도 ‘주선율(主旋律) 영화’의 창작이 매우 활발하며 괄목할 만한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네티즌들이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언급

7) 可怕的的是, 這對財閥一點影響也沒有

8) 吹一些北歐國家就罷了, 吹韓國的人消停吧! 韓國李勝利上了多少次熱搜了? 解決了嗎? 張紫妍上了多少次熱搜了? 解決了嗎?

9) 噫! 張紫妍案件好像也翻拍成電影了[思考]但是十多年過去了, 還是沒有任何結果, 連證人都抓了! 韓國可以繼續拍更多的電影(畢竟事實多的是, 順手改編就行)影響力僅僅是賺個票房吧!

10) 呵呵 我們社會主義國家不叫財閥 那就紅幾代 可比財閥厲害哦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한국 영화 중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로 인해 실제로 현실이 개선된, 예를 들어 영화 〈도가니(熔爐, SILENCED, 2011)〉¹¹⁾와 같은 경우가 있었음에도 부정적 사례만 언급하며 회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 영화에도 사회 비판적 영화가 있다면서 〈나는 약신이 아니다(我不是藥神, Dying To Survive, 2018)〉를 언급하는데 이 영화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얘기하면서 〈기생충〉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어필한다.

〈나는 약신이 아니다〉 또한 국가의 수입 약물 개혁의 발전을 촉진했어.¹²⁾ (좋아요 195)

[반박] 〈약신〉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특별 비준을 통해 촬영한 것이다. 자유로운 영화 환경이 있어서 영화인들로 하여금 영화를 통해 사회의 문제를 폭로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¹³⁾ (좋아요 134)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재벌’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글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기생충〉에서 배우 이선균이 분한 ‘박사장’은 재벌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물론 한 회사의 사장으로 부유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영화 속 어디에도 재벌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 유명 대기업의 총수들을 지칭할 때 재벌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 회사 사장이 ‘박사장’을 재벌로 칭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재벌’이라고 지칭할 때 그 속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미가 있는 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분명 〈기생충〉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중국에는 재벌보다 더한 공산 간

11) 〈도가니〉는 2011년 9월 22일 개봉되었는데 한국에서 이 영화의 사회적 파장은 실로 대단하였다. 이 영화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던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를 이끌었고, 일명 ‘도가니법안(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2011년 10월 28일 통과되면서 장애인 여성과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결과를 이끌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글 참고. 金貞恩, 「韓國電影新趨勢：反映及改變現實社會的力量」, 『香港電影評論學會季刊』第17號, 2011年, 16~17쪽.

12) 我不是藥神, 也推進了國家對於進口藥物改革的發展.

13) 藥神是問題解決之後才經過特批拍的, 而不是因為有自由的電影環境, 使得電影人可以通過電影向社會暴露問題, 解決問題.

부 몇 세대가 있다고, 이러한 글들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댓글도 있다.

주 제작자의 할아버지는 삼성의 창시자야. 니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람이 이런 영화를 찍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¹⁴⁾ (좋아요 1199)

난 부럽지 않아. 자본가가 투자한 영화를 중산계급의 감독이 찍었어. 비록 사회현실을 반영한 영화를 찍어 한국 하층민들이 보고 매우 공감하게 했지만, 실제로로는 돈을 갖다 바치게 한 거야. 돈을 갖다 바치고는 특별히 감동하지. 영화의 수익 분배는 자본가가 나누기 때문에, 감독은 명예와 이익을 모두 거둬, 한국 하층민은 돈을 내서 감동을 샀지만, 현실은 여전히 변할 수 없지.¹⁵⁾ (좋아요 835)

엘리트가 찍은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¹⁶⁾ (좋아요 340)

또한 위의 글들과 같이 유독 감독과 제작자의 정체성을 문제시 삼는 대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들은 <기생충>이 자본가의 자본으로 중산층 이상(어떤 글에서는 봉준호 감독을 상류층 또는 엘리트라고 규정) 출신의 감독이 하층민에 대해 찍은 영화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영화의 주요 투자자라 할 수 있는 '이미경' CJ 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이 '재벌 3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를 찍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재벌 3세'라는 이 부회장의 정체성은 비판적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단지 영화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담보할 수 있지만, '재벌 3세'니깐 사회 비판적 영화를 찍을 엄두를 낼 수 있다'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또한 그들은 봉준호 감독을 엘리트 혹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층민의 영화를 찍은 것은 그저 돈을 벌려는 것뿐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기생충>은 상업적 영화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맞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 같은 정체성을 가진 감독들이

14) 主創人的爺爺是三星創始人, 你以為普通人有資格拍這種電影嗎?

15) 我不羨慕, 資本家出資投的電影, 請的也是出身中產階級的導演拍的電影, 拍的雖然說反應社會現實, 讓韓國底層人民看了很有共鳴, 但實際上是收割了一大波韭菜, 完了韭菜還特別感動, 因為電影分成是資本家在分, 導演是名利雙收, 韓國底層人民出了錢買了感動, 現實卻依舊改變不了。

16) 一部由精英拍的批判精英主義的電影

하층민에 관한 영화를 찍는 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감독의 정체성에 따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영화를 찍어야 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 중산층은 꼭 중산층에 관한 영화를 찍어야 하고 상류층은 상류층, 하층민은 하층민의 영화를 찍어야만 하는가? 물론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사실적인 묘사를 담보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이런 구분을 하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들이 미국 아빠가 좋아하는 '아시아 이미지'를 찍을 수 있다는 게 부럽고, 그들이 영화를 찍어도 사회문제와 자본가 재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부러워.¹⁷⁾ (좋아요 398)

솔직히 이 영화는 별로야. 왜 상을 탈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유럽과 미국인들이 너네의 이러한 낙후된 어두운 면들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 마치 외국인이 국내의 허름한 골목을 파고들어, 휴대폰을 꺼내 멍렬히 찍어 대는 것처럼.¹⁸⁾ (좋아요 315)

[반박] 댓글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 뭐, 현실적 영화를 만드는 게 외국인들 가슴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아시아 이미지를 활는 거라고? 외국엔 현실의 영화가 없나? 어떤 유형의 영화라도 모두 있어야 해. 그렇지 않아? 너 봐봐, 중국대륙은 지금 기본적으로 긍정적 에너지의 영화만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다 환상 속에 사는 게 더 좋지? 동화는 다 거짓말이야[미소] 현실로 돌아오면 좋겠는데?¹⁹⁾ (좋아요 156)

그리고 위와 같이 <기생충>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서양인이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는 지금의 아시아의 모습이나 이미지를 스스로 담고 있는, 즉 '셀프 오리엔탈리즘(Self Orientalism)'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비판의 글들이 있다. 물론 <기생충>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각국의 관객들에게 한국의 '반지하'라는 주거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니 말이

17) 羨慕他們能拍美國爸爸欣賞的“亞洲形象”，羨慕他們拍了電影也解決不了社會問題和資本家財閥

18) 說實話我不覺得這電影怎麼樣，我仔細想了想為什麼能得獎，可能是因為歐美洋人就是喜歡看你們這些落後陰暗的面，就像老外喜歡往國內的破舊巷子鑽，然後用手機一通猛拍

19) 評論有些人說的好搞笑，怎麼，拍一部現實的電影，就是舔外國人心中那個垃圾的亞洲形象？難道外國就沒有現實的電影嗎？什麼類型的電影都不得有不是嗎？你看中國大陸現基本只能拍正能量的電影，所以都活在幻想中更好？童話都是騙人的[微笑]，迴歸現實好點呢

다. 하지만 '반지하'라는 공간은 한국에서 빈곤층의 대표적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에 주인공 '기택'의 가족들이 사는 주거 공간을 '반지하'로 설정한 것은 영화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적 장치를 '셀프 오리엔탈리즘'의 프레임에 억지로 넣어 해독하고자 하는 것은 <기생충>의 의미를 폄하하고 싶어 하는 모종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기생충>을 보는 외국인들, 특히 유럽과 미국인을 한국의 낙후되고 어두운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제국주의자/식민주의자'로 간주하는 이 시각은 문제가 있다. 또한 그런 영화를 찍은 봉준호 감독을 이에 동조하여 그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찍는 감독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논의를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래의 대댓글과 같이 한국을 '오락 지상주의의 나라'로 치부하는 글들도 있다. 한국이 지나치게 문화예술 활동을 중시하는데 이것은 문화 강국 전략이며, 다른 나라는 해외에 가면 신기술을 대동하는데 한국은 스타를 대동한다고 은근히 한국은 제대로 된 기술이 없는 것으로 비하한다. 게다가 중국에서 대통령이 연예인들을 불러 연회를 열었다면, 본업을 파하고서라도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거라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을 비꼬고 있다. 한국이 대중문화와 오락산업을 중시한다고 비판하는 이러한 글들의 이면에는 현재 대중문화 영역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 한국에 대해 시기하는 심리 또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정말 오락 지상주의야. 특히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중시해.²⁰⁾
(좋아요 620)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댓글에 욕밖에 없었을 거야. 보통 스타들의 인기 검색어는 모두 욕을 먹고 어떤 연극쟁이의 일인지 천하가 알아. 만약 연회를 열어 환대했다면, 정부를 욕하느라 본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²¹⁾ (좋아요 516)

20) 韓國真的是娛樂至上, 特別重視這些文藝活動

21) 如果要是我們國家 可能評論就是一片罵聲了 平常明星上個熱搜都要被罵什麼戲子事天下知 如果設宴款待了 就該有罵政府不務正業的了

왜냐면 한국은 문화 강국 전략이기 때문이지²²⁾ (좋아요 145)

국가가 훌륭한 창작물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부럽다. 국내에서 좋은 제재를 못 찍게 하는 거랑 다르다. 그러나 한 편의 영화를 대통령궁에서 환대하는 건... 다른 나라가 세계 행사에 참석할 때 대동하는 것은 기술과 신제품인데, 한국이 거느리는 것은 스타이다. 이런 오락 지상주의는 없애버려야지²³⁾ (좋아요 137)

미국과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기에 중국 영화는 미국에서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아카데미는 이데올로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글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기생충〉이 상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이기 때문이며 중국 영화는 〈기생충〉보다 좋은 영화라 할지라도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다며 〈기생충〉의 수상을 폄하한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좋은 영화들이 많다고 영화를 열거하는데, 중국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애국주의적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대댓글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규칙으로 미국 아빠를 스스로 죽인 것이 부러워, 아니면 보호비가 부러워? 중국과 러시아는 더 좋은 영화를 찍더라도 오스카의 인정을 받을 망상을 하지 마. 〈와호장룡〉은 감독이 대만사람이었기 때문이야.²⁴⁾ (좋아요 398)

오스카는 이데올로기가 심각한 상이야. 매일 추켜올리지 마. 서방 국가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사회주의 국가를 경멸해. 오스카라고 대단하다고 생각 마. 시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우수한 영화가 아주 많이 있어. 작년의 〈나의 아들에게(地久天長, So Long, My Son, 2019)〉, 〈소년시절의 너(少年的你, Better Days, 2019)〉²⁵⁾ (좋아요 151)

만약 어느 날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 我的國, Amazing China, 2018)〉, 〈전랑2(戰狼 2, Wolf Warriors II, 2016)〉 등등 국가 선전 영화

22) 因為韓國是文化強國戰略
23) 國家支持優秀創作真的羨慕，不像國內很多好題材不讓拍，但是一部電影就總統府款待，別國出席世界活動帶的是技術跟新產品，韓國帶的是明星，這種娛樂至上就免了吧
24) 羨慕潛規則自殺美國爹，還是羨慕保護費？中國俄羅斯謝謝國家就算拍出來再好電影，也別妄想奧斯卡認可，臥虎藏龍還是因為導演是彎彎
25) 奧斯卡就是一個意識形態很嚴重的獎項，不要天天吹捧了，西方國家從心眼裏就瞧不起我們社會主義國家。不要覺得了奧斯卡就多牛逼，不酸我們也有好多優秀電影，去年的地久天長，少年的你。

가 오스카상을 탄다? 단지 하나의 상황이 있을 뿐, 중국이 세계를 통일했어. 미국이 성(省)으로 변해 오스카는 성의 상일 뿐이라는 게 말이 되지.²⁶⁾ (좋아요 110)

실제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중국 영화가 수상한 경우는 많았으나, 아카데미에서 순수 중국 영화가 수상한 적은 없다. 리안의 <와호장룡>은 할리우드 자본으로 제작되었고, 리안이 대만 출신 감독이기 때문에 중국대륙 감독이 중국 자본으로 제작한 영화의 수상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작품상까지 수상한 경우도 없었다. 하지만 중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단지 미-중간의 이념적 차이와 아카데미가 이데올로기의 논리가 심각하게 작용하는 대단하지 않은 상이라고 치부하는 것에서 찾으려, <기생충>의 수상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영화가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현실을 심사제도와 결부 지어 정면으로 비판한 글들이 눈에 띈다. 중국 영화의 심사 제도가 많은 영화들을 변질시키거나 사장(死藏)시키는 현실에서 <기생충>과 같은 영화를 찍는 것은 힘든 일임을 네티즌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패한 영화의 나라야. 좋은 영화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심사를 통과해도 훌륭한 일부분을 삭제해야 해. 영화 자본은 인기가 좋은 배우를 캐스팅하고, 인기가 없으면 아무도 찾지 않아²⁷⁾ (좋아요 892)
솔직히 광전총국이 심사 제도를 철폐한다면 중국 영상업계는 순식간에 30년은 전진할 수 있어²⁸⁾ (좋아요 144)

또 <기생충>에 대해 여러 트집을 잡는 것은 결국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에 대한 중국의 열등감 폭발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상황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애국주의 네티즌들을 비판하며 솔직하게 축하해 주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날린다.

26) 如果有一天厲害我的國, 戰狼, 等等國家宣傳片, 得了奧斯卡。只有一種情況, 中國一統世界了。美國變成省了, 奧斯卡是省的獎項就說的過去了

27) 咱國家可是爛片之國 好片不過審 過審還得刪一部分精彩的 片錢請流量好演員人氣不高沒人找 當今中國狀況

28) 說實話, 廣電那破審查要是, , , 中國影視行業能瞬間前進30年

뒤떨어질수록 열등감은 더 예민하지²⁹⁾ (좋아요 668)

우리나라 빈곤 탈출 핵심문제 해결 계획을 어찌서 얘기 안 해? 한국은
고작 몇천만 명이지만, 중국은 14억 명의 빈곤 탈출³⁰⁾ (좋아요 586)

빨리 뛰어가 〈전랑〉의 애국주의 네티즌이 왔어³¹⁾ (좋아요 187)

애국주의 네티즌은 한평생 각성할 수 없는 식물 구더기야³²⁾ (좋아요
126)

이상으로 대댓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 영화의 창작환경과 성과를 부러워하거나 〈기생충〉에 긍정적인 글이 많았던 ‘댓글’에 비해 ‘대댓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 영화의 경사를 솔직하게 축하해 줄 수 없는 중국인들의 심리는 부러움, 시기, 경쟁의식, 그리고 초조함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를 드러내는 이면에는 ‘문화 패권주의’적 시각과 담론이 전제되어 있다. 세계적 ‘문화 제국주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 아시아의 문화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선결과제나 다름없는데, 아직 한국 대중문화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기대에 비해 그 성과가 원하는 정도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러한 ‘문화 경쟁’은 ‘문화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전환되며, ‘혐한(嫌韓)’과 ‘혐중(嫌中)’ 정서로까지 확장되고, 양국 간 대중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완화하고자 계속 노력해야 한다.

3. 중국 영화시장에서 〈기생충〉의 성공 가능성

중국 영화시장에서 〈기생충〉의 성공 가능성을 추측해 보려면, 먼저 〈기생충〉이 중국에서 극장 개봉이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영화 심사 제도가 존재한다. 시놉시스 단계부터 시나리오, 촬영 필름에 이르기까

29) 越落後越自卑越敏感

30) 我們國家脫貧攻堅計劃你咋不說 韓國才幾千萬人 中國14億人的脫貧

31) 快點跑呀戰狼小粉紅來了

32) 粉紅是一輩子也不會醒過來的植物蛆

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영화를 심사한다. 각 단계에서 중국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을 충실히 이행하는 광전총국(廣電總局)의 지도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영화가 아니면 심사에 통과할 수 없다.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심사에 제출하기 전부터 '자기 검열'을 통해 시놉시스와 시나리오의 내용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심사에 제출한 후에도 심사 의견에 맞춰 내용을 수정한다. 촬영이 끝난 필름도 예외가 아니어서 촬영 장면을 삭제 편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중국 6세대 감독 중 한 명인 왕샤오샤이(王小帥)의 경우, 초기작 〈머나먼 낙원/땀대와 아가씨(扁擔姑娘, So Close To Paradise, 1999)〉, 〈북경자전거(十七歲的單車, Beijing Bicycle, 2001)〉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작인 〈열한송이 꽃(我11, 11 Flowers, 2011)〉과 〈나의 아들에게〉까지 여러 작품에서 시놉시스와 시나리오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필름을 삭제 편집하였다.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관리조례』와 『영화 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및 영화 관리 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 문건들에 의하면 10가지 금지내용과 9가지 삭제와 금지 장면 및 상황이 있다.³³⁾ 이러한 금지되는 내용과 장면들이 있기에 여러 한국 영화들이 심사에서 상영이 제한되고 불허된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산행〉(2016)은 좀비를 전면으로 내세운 스릴러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내용의 전개상 다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이는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흉포한 살인, 폭력, 공포스러운 내용의 삽입' 등이 금지되는 중국 영화 심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상영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³⁴⁾ 그렇기에 과연 '빈부 격차'와 같은 사회 비판적 내용, '흉포한 살인, 폭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생충〉이 중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상영 허가를 따낼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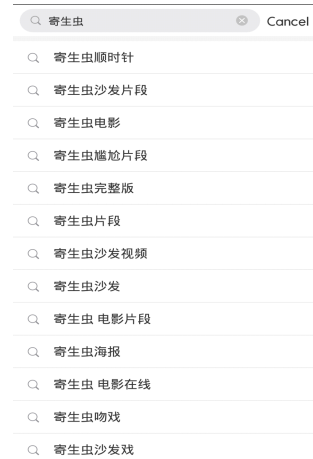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등급제가 없는 중국은 극장 상영 시 기본적으로 '전체 관람가'이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이 여러 연령대가 봐도 무방한 것이어야 한다. 따

33) 중국 영화 심사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대근 외,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중국 영화의 이해』, 파주: 동녘, 2008, 287~288쪽과 299~302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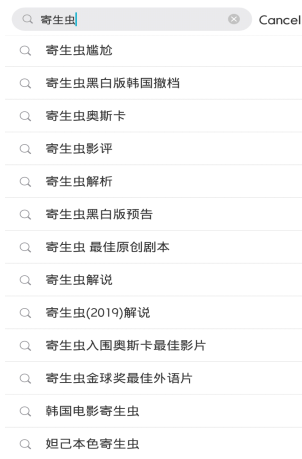
34) 김정은, 「2000년 이후 韓中 블록버스터에 관한 一考察」, 『중국연구』 제83권, 서울: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20, 15쪽.

라서 일부 영화들은 문제가 되는 장면들을 편집하여 상영한다. 앞서 언급한 왕샤 오샤이 감독의 영화 〈열한송이 꽃〉에서 주인공의 부모가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 듣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단지 신음 소리만 들리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신음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를 삭제 편집하여야 했다.³⁵⁾ 신음 소리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기생충〉의 그 유명한 ‘소파 신(scen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삭제되거나 일부를 편집해야 했을 것이다. 앞서 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2020년 7월 30일 연구자는 〈기생충〉 관련 게시물 중 중국 대중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서 본 게시물이 무엇인지, 〈기생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에 관심을 보였는지 궁금하여 웨이보 앱 검색창에서 ‘기생충’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다. 그랬더니 아래의 〈그림4〉, 〈그림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4〉 ‘기생충’ 연관 검색어 1~13



〈그림5〉 ‘기생충’ 연관 검색어 14~26



위의 그림에서 보듯 기생충의 ‘소파 신’은 연관 검색어의 2, 7, 8, 13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대중들이 이 장면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⁶⁾ 만약 중국에서 개봉하기 위해 이러한 장면이 삭제된다면 영화의 볼거리도

35) 新浪娛樂微博, 「《我11》18日上映電影臺前幕後大盤點」, 2012年 5月 17日.

36) 물론 한국 대중들도 이 장면에 관심이 많다. 2020년 8월 16일 네이버 앱 검색창에서 ‘기생충’을 검색하여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았더니 ‘정지소 나이’, ‘정지소’, ‘이정은’, ‘영화 기생충’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전반적인 완성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생충>의 흥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심사에 통과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극장 개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 중국은 극장 개봉할 수 있는 외화의 수가 제한적인데 대부분이 할리우드 영화에 기회가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와 유사한 ‘분장제(分賬制)’ 방식의 극장 개봉이 가능한 외화는 종전 연 20편에서 2012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미국 방문 후 34편으로 확대되었다. 매달 1편의 할리우드 영화 몫을 제외하고 8편을 두고 할리우드 이외 영화들이 극장 상영을 위해 다투다가 22편을 두고 다투는 상황으로 기회가 늘었지만 한국 영화는 그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영화의 흥행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매단제(買斷制/批片)’ 방식의 경우, 매년 약 30편의 외화를 극장 상영하는데 이 또한 기회가 제한적이다. 그동안 한국 영화는 ‘분장제’보다는 ‘매단제’ 방식의 극장 상영이 주를 이루었는데, 상영 기회를 얻었음에도 중국 상황에 따라 개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생충>이 중국에서 무사히 극장 개봉을 할 수 있었을지 크나큰 의문이 든다.

만약 이러한 난관을 다 뚫고 극장 개봉에 성공한다고 해도 “과연 중국 대중들이 <기생충>을 영화관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은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즐기는 영화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생충>을 극장에서 관람할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중 양국 관객들의 성향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흥행했다고 중국에서도 흥행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러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실례로 2012년 한국에서 약 1,3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 <도둑들>은 중국에서 약 2,200만 위안의 수익을 냈는데, 이는 한국에서 약 220만 명의 관중을 동원했던 <7광구(SECTOR 7)>(2011)의 수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해당 연도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암살>(2015)은 중국에서 약 4,698만 위안의 수익을 내었다. 2015년도에 1억 위안

중, ‘최우식’, ‘기생충 해석’, ‘박소담’, ‘봉준호’, ‘박영훈’, ‘기생충 소파신’ 등 10개가 있었다.

이상 흥행수입을 올린 81편의 영화 중 중국 영화가 47편이고, 외국영화가 34편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영화의 중국에서의 흥행은 한국과 많은 격차가 존재³⁷⁾하는 것이 현실이다.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성이 뛰어나 각국에서 흥행한 <기생충>은 홍보 과정에서 각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³⁸⁾ 하지만 그러한 성과가 중국에서도 연결될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앞서 2절에서 언급하였듯 한중 간 문화적 경쟁의식이 존재하고, 게다가 한중 간 흥행 격차에 대한 많은 실례로 봤을 때, 중국에서의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어 보인다.

만약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IPTV 등을 통해 중국 관객들과 만났다면 얼마나 많은 반향이 있었을 것인가? 여전히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공유가 가능한 중국에서 극장 개봉이 아니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중국은 영화산업과 시장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³⁹⁾하며, 중국인들의 중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 또한 상승하였다.⁴⁰⁾ 그에 반해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 내 한류를 선도하였던 것은 한국 드라마와 K-Pop이었지 한국 영화가 아니었다. 물론 한류 초기 일부 의미 있는 축적을 남긴 작품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둔 작품은 없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 차이는 차오화(超話)⁴¹⁾ 팬 수를 비교해 보

37) 김정은, 위의 글, 16쪽.

38) <기생충>의 각국에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임수연, 「8개국 배급 담당자들에게 듣는 <기생충> 현지 반응」, 『씨네21』 No.1243 기생충 스페셜 에디션, 2020년 2월 25일, 17~21쪽.

39) 2002년부터 2019년 사이 중국 영화산업의 주요지표를 보면 중국 영화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목도할 수 있다. 김정은, 위의 글, 7쪽 표2 참고.

40) 2019년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해 인홍(尹鴻)과 쉬샤오위안(許孝媛)은 “국산영화의 시장경쟁력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관객들이 중국 영화 관람을 선택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며 중국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상승하였음을 방증하는데, 2019년 중국 영화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영화가 64%를 기록하며 외화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글 참고. 尹鴻·許孝媛, 「2019年中國電影產業備忘」, 『電影藝術』第391期, 北京: 中國電影家協會, 2020, 39쪽.

41) “차오화란 ‘슈퍼 화제(超級話題)’의 준말로, 슈퍼 토론주제, 끝장토론을 말한다. 차오화는 일반적인 ‘화티(話題, topic)’와는 다르다. ‘화티’를 통해 웨이보에 게시물을 포스팅할 경우, 본인이 지정한 단어에 해당되는 ‘화티’로 게시물이 갈무리된다. 이 ‘화티’는 한국의 SNS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해 단어를 입력하여 게시물을 포스팅 하면, 나중에 ‘해시태그’로 관련

면 명확하다.



위의 〈그림6〉의 한국 영화 차오화의 팬 수는 3,641명이고, 〈그림7〉의 한국 드라마 차오화의 팬 수는 5.5만 명으로, 약 15배가 넘는 팬 수의 차이가 있다. (2020년 8월 16일 기준) 웨이보 차오화는 우리나라의 다음이나 네이버의 카페처럼 일종의 '개방형 온라인 팬덤'⁴⁴⁾으로 기능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나 작품, 장르의 차오화를 찾아서 팔로우하고 그곳의 게시물에서 정보를 얻거나 게시물을 포스팅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팬들끼리 교류한다. 따라서 차오화의 팬 수와 계

단어를 검색할 때 해당 게시물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는 따로 그것을 개설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있는 차오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차오화의 해시태그는 '👁'으로 그 모양이 다르다. 따라서 해시태그의 모양을 보면 이것이 차오화의 게시물인지 일반 게시물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차오화에 글이나 이미지를 게시하는 방법은 페이스북(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유사하게 미니 블로그를 게시한다. 웨이보의 '글(文章)' 기능을 이용해 장편의 글을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Daum)의 블로그 형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차오화에 포스팅 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의 책, 25쪽.

42) <https://weibo.com/p/100808806003f0e20294f6992b699af89860d5>

43) <https://weibo.com/p/10080897edc55a1555ceed89005ab4b023e0fe>

44) 대부분의 카페는 회원가입을 하고 카페 주인 및 운영자가 가입을 승인해야지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반면 차오화는 그렇지 않다. 해당 차오화를 검색하기만 하면 게시물을 다 볼 수 있고, 회원가입 또한 해당 차오화를 팔로우하기만 하면 된다.

시물 수 등을 보면 해당 차오화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웨이보에서 차오화의 활동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차오화의 순위를 매기기도 한다. 위의 <그림6>을 보면 한국 영화는 영화 차오화 카테고리에서 31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림7>을 보면 한국 드라마는 '중국대륙 드라마 차오화'에서 75위에 올라있다. 그렇다면 <기생충> 차오화의 팬은 얼마나 될까?



2020년 8월 16일 기준 기생충 차오화의 팬 수는 552명이고, '게시물(帖子)' 수는 301개이다. 차오화가 개설된 카테고리도 영화가 아닌 의료과학 분야이고 136위에 랭크되어 있다. 한한령 시기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개봉을 하지 않아서 팬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비슷한 시기 방영된 한국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와 비교해 보면 <기생충>의 위상이 명확해질 것이다. <아스달 연대기>는 2019년에 6월에 tvN에 방영된 드라마로 500억이 넘는 한국 드라마 사상 젤 높은 제작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논란과 비판과 함께 최고 시청률 7.7%의 저조한 성적으로 시즌1을 종료했다. 한한령 시기에다 고대사를 배경으로 한 판타

45) <https://weibo.com/p/1008082c0bf72ffd0a9a5f81ae61e85bbad550>
46) <https://weibo.com/p/1008086e27c4ba1de19c6e071639a4bfde8906>

지 역사 드라마의 특성상 중국의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큰 입소문을 타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9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각국에서 팔목할 만한 흥행을 보여준 <기생충>은 한국에서 천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였고 대중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게다가 중국에서 아카데미 4관왕 수상으로 상당한 관심도 받았었다. 하지만 <아스달 연대기>의 팬보다 그 수가 약 3.5배가량 적다.

이처럼 위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검토를 종합해 보면, <기생충>은 만약 한한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비록 상당한 이슈 몰이는 했을지언정, 그것이 기대만큼의 흥행을 담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4. 결론

<기생충>의 수상은 한국인 학자로서 본 연구자에게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기생충>의 성과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생충>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기생충> 수상을 둘러싼 여러 담론과 관련하여 씁쓸하면서도 불편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서구와 할리우드와 같은 '문화적 대국'의 '공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한국 영화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서구와 할리우드의 공인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영화라는 예술과 산업의 후발 주자로서 그 예술과 산업이 탄생하고 발전된 서구 국가들과 할리우드의 인정을 받고 권위를 획득하여 세계 영화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한국 영화의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중국 영화시장에 대해서는 문화 자본의 논리와 문화 '헤게모니(패권주의)'가 이중적으로 작동한다. 세계 영화산업과 시장에서 중국 영화산업과 시장은 홀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한국 영화산업과 시장은 그동안 중국에서 성과를 거둬 한국 영화의 포화상태를 타파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 영화시장의 한계를 거대한 중국 영화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또한 아시아 문화에서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 사이의 암묵적 경쟁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 한국 또한 ‘한류’를 앞세워 아시아의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K-Pop이나 K-Drama를 통해 한국의 그러한 욕망은 일부 충족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영화’에서 만큼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생충〉은 서구 국가들과 할리우드, 일본과 여러 아시아 국가의 영화시장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냄으로써 이러한 한국 영화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다. 그렇다면 중국 영화시장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한국 영화의 관심사일 것이며, 본고의 문제의식 또한 여기서 시작됐다. 〈기생충〉의 중국 영화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본고의 목적이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영화의 이러한 확장 ‘욕망’에 부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난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아시아의 문화적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경쟁의식 등이 존재하는 한 한국 영화의 중국 영화시장에서의 성공은 요원해 보인다.

연구자가 이 연구를 계획하고 〈아스달 연대기〉 ‘퀵’에서 이를 얘기한 바 있다. “기생충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본 연구자의 논문 주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후거 팬’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대답해 볼게. 당장은 안 돼. 내가 〈기생충〉을 보고 이미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 물론 그녀가 영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생충〉과 봉준호의 팬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대해 비판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비단 〈기생충〉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영화시장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영화 전체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參考文獻〉

- 김정은, 「중국 시피편(CP粉)의 한류 팬덤 문화 연구」, 서울: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20.
- 임대근 외, 한국 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중국영화의 이해』, 파주: 동녘, 2008.
- 김정은, 「2000년 이후 韓中 블록버스터에 관한 一考察」, 『중국연구』 제83권, 서울: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20.
- 金貞恩, 「韓國電影新趨勢: 反映及改變現實社會的力量」, 『香港電影評論學會季刊』第17號, 2011.
- 尹鴻·許孝媛, 「2019年中國電影產業備忘」, 『電影藝術』第391期, 北京: 中國電影家協會, 2020.
- 임수연, 「8개국 배급 담당자들에게 듣는 〈기생충〉 현지 반응」, 『씨네21』 No.1243 기생충 스페셜 에디션, 2020년 2월 25일.
- 조연경, 「[新역사 '기생충'①] "4번의 호명, 4번의 전율" 전세계 홀린 오스카 황홀경」, 『일간스포츠』, 2020년 2월 11일.
- 新浪娛樂微博, 「《我11》18日上映電影臺前幕後大盤點」, 2012年 5月 17日.
- 〈기생충〉팀 청와대 오찬 인기 검색어:
<https://m.weibo.cn/1623886424/4474010316806201>
- 〈기생충〉 차오화:
<https://weibo.com/p/1008082c0bf72ffd0a9a5f81ae61e85bbad550>
-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차오화:
<https://weibo.com/p/1008086e27c4ba1de19c6e071639a4bfde8906>
- 봉황천사TSKS 웨이보 계정: <https://weibo.com/u/1855152373>
- 한국 영화 차오화:
<https://weibo.com/p/100808806003f0e20294f6992b699af89860d5>
- 한국 드라마 차오화:
<https://weibo.com/p/10080897edc55a1555ceed89005ab4b023e0fe>

〈Abstract〉

Can “PARASITE” Succeed Indeed in China?

Kim, Jung-Eun

In order to predict the popular success of “PARASITE” in China, I planned an audience analysis based on comments on the Weibo post of “PARASITE” to understand how Chinese public interpreted the movie. About 1,200 online comments were analyzed, collected from 3,875 comments of the post named “PARASITE Team Cheong Wa Dae luncheon”. Among the comments on the post, the comments with more than 50 ‘comments under the comment(CC)’ were selected as ‘important comments’ and CC with more than 100 likes were selected as ‘important CC’. Both ‘important comments’ and ‘important CC’ were the main objects of analysis. The reason I chose these comments is that more than 50 CC means the comments are highly likely to be ‘controversial comments’ that provoke arguments. Plus, because CC with more than 100 likes are opinions with the consent from majority, they could reflect the thoughts of Chinese online users. Therefore, through text analysis of these ‘important comments’ and ‘important CC’, this paper categorizes the discussions on “PARASITE” in China and looks into the spectrum of various views. It also analyzes the views of Chinese online users on “PARASITE”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ARASITE” being successful in the Chinese film market suggesting questions such as “Would it have been possible to be released in China if it had not been for the ban on the Korean Wave?” and “if so, would it have been successful in box office?”

Key words: PARASITE, Weibo comment analysis, Korea-China cultural competition, Possibility of release in China, Chinese film censorship, Possibility of Chinese box office hit, Chinese audience taste

이 논문은 2020년 10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11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